



정교회주보

제2473호

2024.05.1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19> 성산 서쪽 해변에 위치한 성 판텔레이몬 수도원(사진)은 11세기에 최초 설립되었으나 13세기에 대화재로 소실되었다. 현재의 수도원은 1765년에 지어졌다. 1893년에 건립된 종루에는 둘레 8.71m, 지름 2.71m, 무게 13톤의 성산에서 제일 큰 대형 종이 설치되어 있다. 1,380권의 사본과 20,000여 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35개의 성당이 있다.

부활 후 제3주일 (향유가진 여인 주일)

성 바르사라키오스 주교순교자
(제2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2조 찬양송 " " 10
- 아리마태아 요셉 찬양송 · " " 75
- 향유가진 여인 찬양송 · " " 76
- 부활 시기송 " " 39
- 사도경 : 사도행전 6,1~7 252
- 복음경 : 마르코 15,43~16,8 ...98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나와 함께 씨를 뿌리려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마태오 13,3)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주 옛날부터 모든 시대에 씨를 뿌리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분이 오늘날까지도 앞서 가시며 씨를 뿌리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씨를 쌓아둘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습니다. 탐욕스럽게 쌓아두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뿌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둔들, 당신이 아니 계신다면, 다 무익할 뿐입니다. 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당신이 아니 계신다면, 그것은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 수확도 얻지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과 함께 씨 뿌리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트로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트로피(Trophy)는 경주에서 우승했을 때 받는 상입니다.

매년 4월 23일(만약 부활절이 4월 23일 이후이면 부활절 다음날)에 우리가 축일로 기념하는 요르고스 성인(3세기)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한 분입니다. 요르고스 성인은 숭한 어려움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덕행의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그로 인해 ‘순교의 트로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이는 항상, 특히 오늘날에는, 끊임없는 투쟁을 전제로 합니다.

어려움은 참으로 많습니다.

젊은이라면, 다양한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기에...

사업가라면, 손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기에...

어머니라면,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에...

아버지라면, 항상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져야 하기에...

학자라면, 단순히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가 아닌, 지식 나눔의 정신으로 학문을 연구해야 하기에...

정치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빈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며 여러 압력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혹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하기에...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종의 ‘경주’를 치루고 있고, 이 경주를 끝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상’ 역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르고스 성인이 받았던 그 힘의 원천, 즉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트로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믿음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회개와 기도의 힘

대아타나시오스 성인에게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 안에 머무시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내면의 꿈틀거림을 통해 이를 알게 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배 속의 움직임 통해 그 사실을 온전히 아는 것과 같이, 사람도 마음의 변화로써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절에 무엇을 느끼는지, 성체성혈을 모실 때 어떻게 느끼는지, 성당에 갈 때,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심정인지, 내면에서 어떤 꿈틀거림을 느끼고, 어떤 기쁨을 느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느끼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한 후에 정말 다른 심정을 느낍니다. 그들은 정말로 무언가 다른 종류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그들이 알아내거나 밝혀낼 수 없는 무언가가 내면에 있음을 느낍니다.

바로, 지난 날에는 느낄 수 없었던, ‘성령’, ‘은총’이라고 불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백성사를 하고 나온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느낍니다. 전에는 위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보게 됩니다!”

거짓말은 쉽게 드러납니다...!

어느 부활 주일에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거짓말의 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활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마르코 복음 17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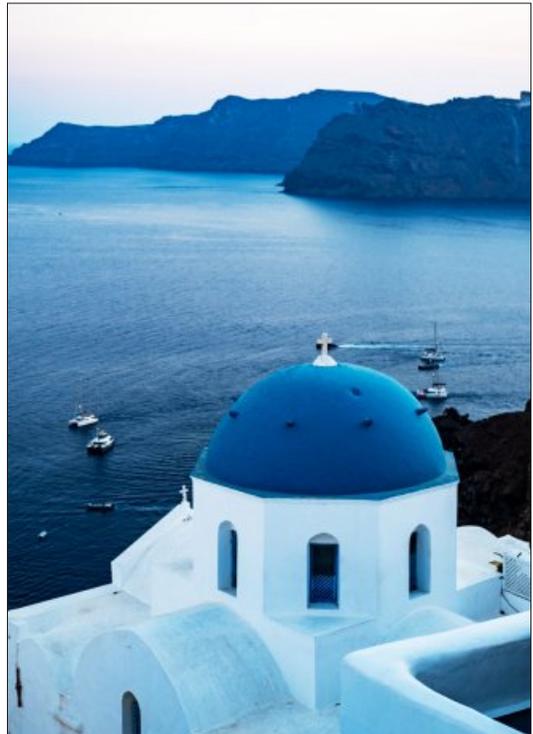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찬예배가 시작되기 전,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마르코 복음 17장을 읽으신 분 있나요?”

그러자 성당 안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미소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르코 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5월 21일(화)

성 콘스탄티노스 황제
성 엘레니 모후 사도대등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소중한 가르침

-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좁고 험한 길이지만 하늘의 왕국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알림

故 바울로 권언건 사제 안식 7주년 추도식

지난 주일(12일), 서울 성당과 울산 성당에서 성찬예배에 이어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서울 성당에서 추도식을 집전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추모사를 통해, 생전에 말년까지 극진한 사랑과 헌신으로 한국 정교회를 위해 봉직했던 바울로 사제를 기억하며, 그분이 천상에서 부활의 빛 속에 머물며 한국 정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전했고, 바울로 사제의 가족분들 역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부활의 빛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다음 주일(26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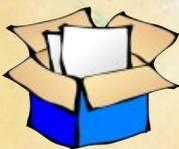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동정

세계 총대주교청 공의회 참석을 위해 지난 목요일 출국하셨습니다.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시길 기원합니다.

러시아 신자들 동대문 음식 축제 참여

지난 11일(토), 동대문구에서 열린 ‘세계 가족 축제 세계 먹거리 장터’에 로만 대신부와 서울 성당 소속 러시아 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직접 만든 러시아 음식을 팔았고, 수익은 성당에 기부했습니다.

영성의 샘터



마음속에 담아둘 것

사부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조언했다.

“어떤 형제가 방문할 때 그대는 얼굴에서 슬픔을 걷어내어 그가 돌아갈 때까지 마음속에 감춰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다시 그것을 꺼내라. 그대의 이런 모습을 사탄들이 보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그대에게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